

## 2014 육우자조금사업 홍보 실적

올해 육우의자조금 거출률 95% 상회

올해 처음으로 의무자조금을 실시한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사업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95%의 높은 거출률을 올려 육우소비홍보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비홍보사업에 금년도 예산의

60~70%를 집중 투입해 소비자들에게 육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직접적인 구매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왔다. 방송프로그램협찬(PPL)과 온라인 홍보, 육우페스티벌, 육우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 육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 중 하나는 방송프로그램협찬(PPL) 부문이다. 일반소비자들이 즐겨보는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에서 육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산 쇠고기 육우의 오해와 진실 1편-다이어트 생각한다면 고단백 육우, 어때요?(SBS 생활경제)’, ‘해독 요법 시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 육우((SBS 좋은 아침)’, ‘오늘아침 브리핑-음매~기살아? 육우에 대한 진실과 오해 편(MBC생방송 오늘아침)’ 등이 TV를 통해 방영됐다. 또한 라



## '서울신문'



▲ "우리육우 드세요"  
가수 조정치(왼 오른쪽)와 개그맨 강동민(오른쪽에 서 두 번째)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9본관 앞에서 열린 '2014육우페스티벌' 일환으로 진행된 우리육우 알리기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육우핫도그를 나눠주고 있다.  
안주열 기자 jya@seoul.co.kr

디오방송의 경우 MBC '박준형·정경미의 두시 만세', KBS2 '조정치·장동민의 두시', SBS '호란의 파워 FM' 등에서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소, 우리 육우'라는 육우홍보 슬로건을 알렸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육우에 대한 홍보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기획보도와 보도자료, 행사보도 등 다양한 기사를 통해 육우에 대한 우수성과 장점 등을 알렸다. 온라인 홍보 부문의 경우 블로그 및 페이스북,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신세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등을 실시해 '육우 알리기'에 주력했다.

그밖에 지난 9월 2일에는 여의도에서 육우페스티벌을 개최해 많은 시민에게 육우핫도그를 시식하도록 해, '육우의 맛'을 알렸으며, 주부들을 대상으로 육우쿠킹클래스를 20회 개최해 육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해 알린 후 간편 요리실습 및 시식회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6월 12일에는 2014 육우지도자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해 육우 산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병권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육우산업 발전방안으로 소비시장 활성화(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추진 등)와 육우산업의 이익을 대변할 조직 주체 세우기, 육우고기 통합브랜드 추진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지역 대표하는 농가를 선임하여, 육우고기 소비촉진 사업으로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고, 각종 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육우(품목)농협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육우군납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등심 등 고급부위의 적절한 판매를 위한 상설협의기구로서 '육우군납위원회' 설립을 결의했다. ☺